식당 종업원 뽑았는데 손님은 아직…

거리두기 해제 첫 주 '당근알바' 광주 구인 증가…"배달 익숙·회식 기피에 회복세 더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구인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매출 회복세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 주(4월18~24일) '당근알바' 구인 글은 직전 주에 비해 광주 15%·전남 25% 증가했다.

'당근알바'는 사업장과 인근 구직자간 채용을 연계하기 위해 당근마켓이 지난해 8월 선보인 게시판 서비스이다.

이곳에는 음식점이나 주점 단기 근로자나 포장이사, 학습지, 용역 등 다양한 직군 일자리가 오르내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됐던 전통적 서비스업 채용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청의 속보성 경제·사회지표 '나우캐스트' 자료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4월17~23일)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오른 광주지역 구인 공고는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20년 1월 일주일 평균에 비해 121.4% 증가했다.

전남 전체 구인 공고는 2020년 1월보다 52.9% 증가했다. 두 지역 구인 증가율은 전국 평균(33.9%)을 훌쩍 넘었다.

지역 구인 공고 가운데서는 음식·숙박 서비스 부문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음식·숙박 서비스 구인 공고는 2020년 1월과 비교해 광주 348.2%·전남 296.0% 급증했다.

광주의 경우 교육서비스(322.6%)와 제조업(165.3%), 식료품 및 의류(152.0%), 사업 지원 서비스업(92.7%), 건설 및 공사(61.6%) 부문 순으로 구인 공고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52.0%)과 오락 스포츠 및 문화(-29.2%), 보건(-8.8%)은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도 구인 공고가 줄었다.

전남은 광주와 달리 사회복지 서비스업 구인이 63.6% 증가하고 오락 스포츠 및 문화(30.4%), 보건(5506.5%) 부문 공고도 늘었다.

이외 구인 공고가 늘어난 산업은 교육서비스(455.9%), 제조업(188.0%), 사업 지원 서비스업(69.9%) 등이 있었다.

전남에서 식료품 및 의류(-37.5%)와 건설 및 공사(-14.7%) 구인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감소했다.

음식·숙박 서비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계 인력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거리두기 해제 첫 주 지역 사업체들의 카드 매출은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신한카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광주지역 가맹점 카드매출액은 2020년 1월 일주일 평균 매출보다 2.7% 감소했다.

전국 카드매출은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 7.7% 증가했으며, 전남은 13.2% 늘었다.

거리두기 해제 첫 주 카드매출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감소한 시·도는 대전(-12.3%), 대구(-7.7%), 부산(-5.7%), 전북(-3.1%), 광주(-2.7%), 인천(-0.1%) 등 6곳이다.

같은 기간 동안 광주 음식 및 음료서비스 가맹점 카드매출은 2020년 1월보다 8.7% 감소했다.

주류와 담배를 포함한 '식료품 및 음료' 매출은 27.8% 감소하고 숙박(-13.8%), 교육서비스(-34.1%), 보건(-10.7%) 등도 매출이 줄었다.

반면 의류 및 신발 부문 카드매출은 22.0% 증가했다.

조계헌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강화된 거리두기를 겪는 지난 2년여 동안 포장 음식과 배달 추세에 익숙해졌다"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탓에 이른바 '3차 문화'와 기업·단체 회식이 예전 같이 않는 이상 자영업자 매출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다니는 주유소 기름값 내렸나요?

유류세 30% 인하 일주일 5곳 중 1곳만 '리터당 83원' 내려…인하분 100% 반영 일주일 더 걸릴 듯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지 일주일간 광주 주유소 258곳 중 50곳이 정부안대로 휘발유 가격을 ℓ당 83원 이상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이상 가격으로 경유를 판 광주 주유소는 일주일 새 22곳에서 80곳으로 늘어났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일 기준 지역 주유소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광주 1924.37원·전남 1940.1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확대하기 직전인 지난 4월30일(광주 1966.85원·전남 1984.19원)에 비해 각각 42.48원(-2.2%), 44.01원(-2.2%) 내린 가격이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유류세 10%포인트를 추가 인하(20%→30%)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역대 최대 폭 인하로, 유류세 20%를 인하한 석유류 가격(부가세 포함·ℓ당)보다 휘발유는 83원, 경유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더 인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안대로 휘발유 ℓ당 83원 이상 내린 주유소는 광주에서 5곳 중 1곳꼴(19.4%)이었다.

7일 기준 오피넷에 공시된 광주지역 258개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을 유류세 인하 확대 직전인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ℓ당 83원 이상 내린 곳은 50곳이었다.

가격을 내린 주유소 가운데 인하 폭이 83원에 못 미치는 주유소는 146곳이었고, 일주일 전과 가격이 같은 주유소는 55곳이었다. 일주일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오른 주유소도 7곳 있었다.

경유 가격의 경우 일주일 새 ℓ당 58원 이상 내린 주유소는 258곳 중 41곳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과 경유 값이 같은 주유소는 63곳이었고, 일주일 전보다 오른 곳은 112곳이었다.

경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 가운데 인상 폭이 ℓ당 50원 이상인 곳은 7곳이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광주 주유소는 22곳이었다. 일주일 뒤 휘발유 값 이상 가격으로 경유를 판 주유소는 80곳으로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까지 2주 가량 지나야 유류세 인하분이 100%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달부터 전국 760여 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계 증시 출렁…코스피 2600선 지지 시험대

고금리·고물가 우려 여전
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
"불확실성·변동성 지속"

전 세계 증시가 미국 통화당국의 '빅스텝'(0.50%포인트 금리 인상)에 출렁거렸다.

증시 전문가들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에도 시장이 당분간 불안심리를 이어가 코스피가 재차 2600선까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50bp) 인상하고 다음 달부터 양적긴축(QT)을 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새벽에 전해진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에 코스피는 6일 장중 2630선까지 떨어졌다.

코스피는 지난 6일 2644.51로 마쳐 한 주간 1.87%(50.54%포인트) 하락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는 지난달 22일(2704.71) 이후 2700선을 밟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에 휘둘리는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치솟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 외국인 투자자금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6일 기준 11조1000억원을 넘는다. 이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6일 하루에만 50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순매도했다.

연준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빅스텝 논의를 예고했으며 양적긴축 규모도 다음 달 475억달러로 시작해 석 달 후 950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내부에선 파월 의장의 경기 연착륙 발언에 의구심을 드러내거나 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으로 돌아설 것을 원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긍정적인 고용 동향 발표에도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번 주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건 우리 시간으로 오는 11일 밤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이다.

국내에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고삐를 죄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1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11	14	18	26	27	2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410,449,338	10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8,223,414	69
3	5개 숫자일치	1,410,115	2,849
4	4개 숫자일치	50,000	143,906
5	3개 숫자일치	5,000	2,372,712

MZ 세대 '와인-위스키 성지' 보틀벙커 광주 상륙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에 3호점

롯데마트는 최근 와인·위스키 전문점 '보틀벙커 3호점'이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에 문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보틀벙커 3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0% 증가했다.

20~30대 MZ 세대를 겨냥한 이 주류 전문점은 한 잔당 2000원부터 5만5000원대에 이르는 다양한 와인을 취향에 맞게 시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용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시음 기계에 접촉해 시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맛볼 수 있는 와인 종류는 80여 종에 달한다. 소믈리에를 보틀벙커의 점장으로 앞세워 맞춤형 와인 추천을 벌이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보틀벙커 매장의 경우 개장 전부터 평소 구하기 어려웠던 주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긴 대기 행렬을 이루는 '오픈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보틀벙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와인 기획 상품을 선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수출 완연한 회복세

1분기 119억달러로 전년비 33.4% 늘어
석유화학제품 등 주력품목 단가 강세 영향

2022년 1분기 전남지역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4% 증가한 119억8000만 달러를 기록,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역대 1분기 수출액은 2019년 83억 달러, 2020년 73억 달러, 2021년 90억 달러였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전남의 최대 수출품인 석유화학제품이 4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2.4% 증가했고 광물성연료는 40억 달러로 95.2% 늘었다. 반면 철강제품이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3.9% 감소한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 농수산식품은 26.5% 증가한 1억4000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 전복, 분유로 각각 5600만 달러(39.3%), 1000만 달러(36.6%), 860만 달러(5.1%)로 고르게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 29억 달러(18.2%), 베트남 9억8000만 달러(158.6%), 미국 8억4000만 달러(61.9%), 호주 7억 5000만 달러(198.8%), 일본 7억5000만 달러(14.9%) 순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베트남, 호주 등 석유제품 수출이 3배 이상 늘어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해외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주시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해외시장 개척 수출상담, 해외박람회 참가 등 모든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기동물 치료비 기부 광주은행 송종욱(왼쪽) 은행장은 최근 공익형 ESG 상품 '멍이냥이적금' 판매로 생긴 기부금 450만원을 광주시 동물보호소를 위탁 운영 중인 사단법인 가치보듬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판매된 '멍이냥이적금'은 총 4517명이 가입했으며, 가입자 1인당 1000원이 유기동물 치료를 위해 모여졌다. 〈광주은행 제공〉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3일까지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분야 및 대상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온라인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시장반응 수요조사 총 4개 분야 6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각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본사가 전남 소재인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문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의 사업공고를 참조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가 가능하다.

이인용 원장은 "지역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기업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에 앞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이 운영하는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는 정보통신기술(ICT)·SW 및 문화산업기업 44개사와 200여명의 대표와 임직원이 근무하는 전남지역 대표 기업보육시설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난 2003년 개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학연금 '온라인 국민홍보단' 참가자 모집

광주·전남 고교생 등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오는 15일까지 국민 소통협의체 '온(On)세상·온라인-국민참여홍보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사학연금에 관심있는 광주·전남 지역 고등학생을 포함한 전국 국민과 대학생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지역 고등학생을 신규 단원으로 모집해 사학연금 미래 고객과 소통 기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총 20명이 선발되며, 이들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트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홍보단은 앞으로 사학연금제도를 안내하고 기관 소식을 공유하며 홍보 관련 사업안을 제안한다.

활동 기간은 오는 6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5개월 가량이다. 매달 소정의 활동비가 주어지며 연말 우수활동 단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이 수여된다.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참가자들은 나주 사학연금 본사에서 위촉장과 홍보 교육을 받는 발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tp.or.kr)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